

최적 현금보유량 결정에 관한 소고-한국통신의 사례

유 태열, 차 재연
한국통신 연구개발단

요 약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관리 기준이 되는 최적 현금보유량 결정을 한국통신 자료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최적 현금보유량은 기업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되며, 대부분의 유동자산이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있어서는 운전자본 관리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지표이다. 한국통신은 자금을 시달준비 자금, 대기성 자금, 그리고 장기성 자본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밀러의 오어 모형을 응용하여 일별 현금 수입·지출자료를 사용하여 현금 유출입의 분산을 추정하였다. 또한 거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만기전에 해약함으로써 발생하는 정기에금의 손해비용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미래수익의 변동성이 심하지 않으며, 미래 현금흐름이 비교적 정확히 예측되는 어느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